

광주서 여고시절 키운 수학자의 꿈 美 예일대 312년 ‘금녀의 벽’ 뚫다

7월 수학과 종신직 정교수 임용 오희 교수

광주 출신 여성 수학자가 312년 간 유지된 ‘금녀의 벽’을 뚫고 미국 예일대 수학과 종신직(테뉴어) 교수 됐다. 주인공은 고등과학원 소속 스칼라(교수)인 오희(여·44) 미국 브라운대 교수.

오 교수는 오는 7월 1일자로 예일대 수학과 종신직 정교수로 임용된다. 예일대가 수학분야 종신직 교수로 여성은 임용한 것은 1701년 대학 설립 이후 처음이다.

오 교수는 광주 출신으로 1988년 광주여고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 예일대에서 수학과 박사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대와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를 지냈다. 현재 브라운대 교수이자, 2008년부터 고등과학원 스칼라로 재직 중이다.

오 교수는 29일 고등과학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 때 수학이 재미있었다. 다른 과목은 외워야 했는데 혼자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았다”고 말했다.

그가 수학자의 길로 들어선 데는 당시 광주여고 수학 교사였던 송현길 선생님의 영향이 커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여고 3학년때 담임이셨던 송 선생님은 독특하게 수학을 가르쳤다”며 “대부분의 수학 선생이 교과서 문제풀이 방식이었는데 송 선생님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내게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푸는 방식이었다”고 회상했다.

광주시 교육청 장학사와 세종고



오는 7월 1일자로 예일대 수학과에 종신직 정교수로 임용되는 고등과학원 스칼라인 오희 미국 브라운대 교수.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시점에

가면 공부를 잘하는 법에 관한 책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읽어도 자신

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수학자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들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계속 생각해야만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여성 최초 예일대 수학

과 교수로 선임된 김중수 교수는 “수학을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수학과를 권했다고 했다.

그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열

<p